

“사부대중 결집 통한 불교중흥 가능성 확인한 거룩한 여정”

10월17일 회향 앞두고 자자회 개최
천릿길 뒤돌아보며 감사·희망 나눠
음식물쓰레기일회용품 배출 참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불제자 다짐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 423km 대장정의 마무리를 하루 앞두고 마지막 숙영지인 울산에 도착한 순례단이 그동안의 여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은 10월17일 양산 통도사를 목전에 둔 울산 캠핑월드에 도착해 무르익어가는 가을의 품에서 17일간의 발걸음을 되짚고 마음을 나누는 자자(自恣)회를 개최했다.

자자회에 동참한 순례대중들의 한목소리는 ‘감사’와 ‘원력’이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가을에서 겨울의 초입으로 들어서는 여정에 함께하며 서로를 격려해준 도반, 순례단의 집자리와 공양을 비롯해 안전과 건강 등을 살피며 묵묵히 봉사해 준 외호대중,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대중들을 이끌고 살핀 회주 자승 스님에 대한 감사였다. 그 여정에서 발견하고 무르익은 한국불교 중흥의 가능성을 가슴에 아로새긴 순례대중은 차오르는 원력으로 자자회를 영상회상과 같은 감동으로 물들였다.

자자회는 이날 숙영지가 협소한 까닭에 하루 전 표충사에서 진행된 조별 자자의 내용을 공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삼보사찰 천리순례 총도감 호산 스님의 사회로 마지막 8조부터 차례로 진행된 자자에서는 각 조 조장과 대표들이 조원들의 자자 내용을 발표하며 이번 순례 기간 느꼈던 좋았던 점과 감회를 전했다. 동시에 아쉬웠던 점과 각자의 참회는 물론 앞으로의 계획도 가감없이 드러냈다.

우바새로 구성된 8조를 대표해 발표한 이재완 부조장은 불교중흥의 젊은 피가 될 것임을 다짐했다. 그는 “8조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은 10월17일 최종 목적지인 통도사를 목전에 두고 지난 발걸음을 돌아보는 자자의 시간을 가졌다.

령대의 우바새들이 도반이 되어 삼보사찰 천리순례에 함께했다”며 “불자들의 결속력과 힘, 그리고 한국불교 중흥의 가능성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여정이 불법승 삼보를 마음으로 느끼고 직접 친견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한 동참자의 소감이 눈길을 끌었다.

8조 조원 중 한 명은 “가장 싫어하는 일이 걷는 일이었고, 17일간의 시간도 걷는 것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는 못했다”면서도 “이번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통해 행복은 서로에게 조금씩 베푸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느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국난을 극복하는 길 또한 서로에게 베푸는 마음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말해 깊은 공감을 불러왔다.

우바이조인 7조에서는 감사의 인사가 이어졌다.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신 부처님과 불법을 수호하는 스님들에 대한 감사, 순례가 이어지는 동안 틈틈이 전해진 회주 자승 스님의 가르침에 대한 감동이 주를 이뤘다. “매일 새벽예불을 모시고, 휴대폰을 꺼놓아 생각의 시간을 가진 게 좋았다. 무엇보다 회주스님의 응원과 격려가 순례의

큰 힘이 됐다”며 “매일 회의를 통해 순례대중들의 소소한 불편함까지 풀어주려 애쓰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우바이조 6조에서는 감사와 함께 참회의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도착지마다 환영해준 불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도 잊지 않았다. 6조 이태경 조장은 “긴 여정의 힘겨움 속에서도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 부처님을 닮아가고 있음을 발견했다”며 “도착지마다 환영해주는 불자들을 볼 때면 가슴이 뭉클해짐과 동시에 우리가 이런 환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게 됐다”고 말해 모두를 숙연하게 했다. 6조에서는 “순례단을 환영해주고 응원해 준 불자님 모두가 부처이고 보살임을 알게 됐다”며 “마음으로 냈던 차별심과 분별심, 덧붙여 잠깐 잠깐 마스크를 내렸던 행동까지도 모두 참회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중들은 박수로 이들의 참회를 받아들었다.

비구니스님 5명으로 구성된 5조에서는 순례 여정의 어려움보다 함께한 도반과 대중들에 대한 감사의 목소리가 더 컸다. 5조 조장 지해 스님은 조원들의 자자 내용을 전하며 “많은 분들의

원력이 더해져 개인의 수행이 전법의 힘으로 확대됐다는 소감과 함께 순례단의 뒷바라지를 해준 봉사자들, 힘든 길에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도반들, 그리고 환희로운 순례의 길을 열어주신 회주스님에 대한 감사의 인사가 이어졌다”고 조별 자자의 내용을 전했다.

1조부터 4조까지는 비구스님 48명으로 구성됐다. 비구스님들은 이번 순례 기간 동안 아쉬웠던 점을 공유하며 다음 여정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제시했다. 4조 조장 설암 스님은 “올해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지난해 자비순례와 비교해 진행과 준비에 있어 체계가 잡힌 모습이었다”며 운영진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4조 스님들은 이번 순례 동안 많은 사찰을 참배했지만, 미처 들리지 못한 작은 사찰들도 많았다는 점에서 다음 순례에는 더 많은 사찰을 참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와 함께 포교 활성화를 위해 더욱 다양한 순례 프로그램들이 구성됐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3조에서는 만행결사의 본래 목표인 인도 성지 순례에 모든 조원들이 동참하겠다는 뜻을 전하

면서 보다 여법한 순례를 위한 제안을 제시했다. 3조 조장 범일 스님은 “많은 대중이 함께 순례를 하다보니 음식물쓰레기 발생과 일회용품 사용이 불가피했다”며 “내년 인도 성지순례가 진행된다면 개인용 식기를 준비하고 뷔페식으로 음식을 준비해 발우공양의 형태로 진행한다면 음식물쓰레기와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2조에서는 “순례기간 대중들이 함께한 공양게송이 대중화돼 음식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키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2조 조장 설도 스님은 “많은 분들이 순례단을 위해 공양을 준비해 주었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다. 한편으로 공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돌아보게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스님들의 자자 내용을 전했다. 이어 “과분한 공양에 감사하고 공양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일깨우는 데 공양게송이 큰 역할을 했다”며 “공양게송이 쉽고 간소할 뿐 아니라 내용도 좋았던 만큼 이번 순례에 함께한 스님들과 불자들이 각자의 사찰과 가정에서 공양게송을 생활화해 공양게송을 대중화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1조의 자자는 순례대중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동명 스님의 당부로 대신했다. 동명 스님은 “한 사람의 스승을 모시기 위해서는 수천명의 제자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이번 순례에 동참한 사부대중이 모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 후에도 수행자로, 불자로, 사회인으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 이 자리를 만들고 이끌어준 회주스님이 불교계뿐 아니라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회향”이라고 말해 대중들의 가슴에 또 하나의 화두를 심어주었다.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감사와 참회의 마음을 나눈 자자회는 동참대중 모두가 회주 자승 스님과 동명 스님에게 합장 인사로 감사의 뜻을 전하며 마무리됐다.

울산=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삼보사찰 천리순례 동참대중

자승, 동명, 성우, 호산, 우봉, 도림, 심우, 선광, 오심, 현민, 덕조, 효림, 해관, 설도, 탄우, 원평, 환풍, 태성, 향평, 진오, 하원, 대우, 본오, 혜장, 대진, 범원, 향림, 제민, 선지, 현해, 허허, 범정, 보관, 정명, 지우, 함걸, 설암, 탄학, 성화, 탄우, 탄하, 탄목, 문준, 보월, 보림, 삼조, 능원, 해일, 지해, 묘수, 정해, 해민, 대현, 스님, 이태경, 성계순, 홍차선, 강둘래, 광영옥, 정대심, 안응연, 윤현서, 강덕순, 이세옥, 김선희, 양인숙, 김정숙, 김화자, 백금선, 이윤선, 남민옥, 황희상, 장윤정, 정유림, 정혜림, 하정수, 박선민, 김나현, 정종래, 이재완, 김정도, 이환희, 김호준, 주윤식, 김형규, 윤재웅, 김용현, 이영귀, 조남일, 안현민, 강용환, 윤순성